

## 김기천 목사의 영성 독서

### “수도원 전통“

5세기, 로마가 망해가고 외부 침략이 빈번했던 시기에 “사막의 교부“라고 불리던 존 카시안(John Cassian, 주후 360-435)은 유럽 땅에 수도원을 설립하고 수도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평생 의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참 의미를 깨달으려면 수도사들은 금식과 철야를 하며, 더욱 깊은 영성을 계발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고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카시안은 성경 안에는 놀라운 영적 실재들이 인간의 언어에 의해 베일로 가려져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영적 실재를 경험하는 깊은 영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평생토록 연구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영성독서”(Lectio Divina)의 본질을 지적한 것이지요.

이런 카시안의 수도원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성 베네딕트(St. Benedict, 주후 480-543)였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영성을 위한 성경연구는 수도원 규율에 중심이었습니다. 수도원 내에서는 하루 일과 가운데 여러 번 시간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규율(Officium Divinum)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잃어버린 전통이지만 영성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수도사들은 기도를 마치고 다음 기도가 시작되기 전 중간에는 시편에 곡을 붙여서 노래로 부르곤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말씀에 곡을 붙인 찬송가를 불렀다고 해야겠지요. 또한 수도원에서 식사시간이 되면 식사하는 동안 한 사람이 성경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수도사들이 읽었던 성경이라야 오늘날 성경의 일부분만 수록된 사본들이었습니다. 아직 인쇄 기술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을 만들려면 원본을 보고 손으로 베껴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경책을 한글로는 “사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manuscript“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손“이란 라틴어 manus(마누스)와 “기록물“ 또는 “책“이란 scriptum(스크립툼)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성경 원본들을 모두 구하기도 힘들지만 66권 전체를 손으로 베껴 쓴다는 것 역시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과 구약이 합본된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사본들을 통해서만 성경말씀을 접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절기에 따라서 연관된 성경구절을 뽑아서 만든 성구집(Lectionary)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인 교부들이 쓴 글 안에도 인용된 성경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규율에 따라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성경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성경읽기, 성경묵상 등을 통해서 수도사들의 마음속에 쌓인 성경의

가르침이나 형상들은 수도사들의 영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전체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있는 사본들, 성구집, 교부의 글들을 매일 하루에 두 시간 이상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영성독서”(Lectio Divina)는 성경말씀만이 아니라 교부들의 글들과 같은 경건서적들도 포함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팔만 뺨으면 읽을 수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 선배들처럼 소중하게, 진지하게, 영성을 위해서 성경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자문해봅니다.

## 장로교와 감리교?

김기천 목사

오늘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시던 집사님 뜬금없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꽤나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를 묻는 것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장로교의 기초는 ‘예정론’을 강조하던 칼빈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었지요. 반면에 감리교나 성결교 등의 교리는 알미니안 주의의 중심인 ‘자유지론’에 기초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말입니다. 결국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란 질문은 예정론이나 자유지론이나에 기초하지요. 예정론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한다면 또한 자유지론은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이 구원받고 저주받는 것조차 다 아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결국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반면에 자유지론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더불어 인간의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결단 즉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나름대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선행은총(Prevenient Grace)"이라는 사상은 사실 알미니우스(Arminius)가 가르친 것이지요. 그런데 미리 정해 놓은 이 길,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직 인간이 덜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칭의, Justification)해주시는 것이고요. 이때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Grace of Justification)이 함께 도우시지요. 이것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덜된 인격을 다듬는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 단계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성화(聖化, Sanctification)라고 하지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성화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한 인간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돕지요. 성화의 마지막 마지막 단계가 영화(榮化, Glorification)이지요.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을 보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중심이긴 하지만 인간의 의지적인 순종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구원론이지요. 뭐 좀 복잡하게 말하면 '신인 협동 구원론(Synergism)'이라고 하지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이 두 주장의 대립이 최초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거스틴 시대라고 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으로 교회 안에 이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예정론을 주장했던 어거스틴은 카르타고 회의(주후 418)를 소집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유의지론을 주장했던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정론을 주장했던 칼빈의 입장을 옹호하는 고마루스(Gomar)와 자유의지론을 주장했던 알미니우스(Arminius)의 논쟁이 터져 나옵니다. 고마루스는 알미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지요.

문제는 성경을 뒤져보면 바울의 글들 안에는 예정론을 지지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과 같은 요한의 글들을 보면 인간의 결단 즉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말씀들이 나오지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냐 틀리냐?"라는 질문을 성경의 한쪽만 받아들이고 다른 쪽은 버리겠다는 말과 같지요. 성경에는 모두 들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둘 다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집

사님과 함께 새벽예배를 마치고 아침식사를 하게 된 것을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론 입에서 보면 우리끼리 우리의 의지만으로 식사자리가 마련된 것이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지요.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자리를 계획하셔서 지금 집사님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아침 식사하는 이 자리와 지금 한 순간 한 순간이 감사할 따름이지요. 10년 전에는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지요. 바울은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미리 택정하셨다고 자신있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믿음과 고백 그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아무일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당신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 25:24)"라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며 꾸짖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명령을 받은 종처럼 행동해야지요. 자발적인 의지로 결단해서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예정론적인 고백과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려는 책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리라는 칼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교회 역사를 보면 목을 잘라 죽이기까지 했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내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며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의 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이라면 둘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맞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면 성경의 큰 부분을 잘라내고 가르치는 이단이 되는 것이겠지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논리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 맘에 안 든다고 무식하게 잘라내는 횡포는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방 세놓음 Room Rent**  
 Room Rent : \$350/month +  
 Util 1/3  
 Available date: 5/20/12  
 phone : 505-352-5775

## 광야에 핀 4월의 야생화

사진과 글: 이경화

알버커키의 뒷 마당 이라고도 할수 있는 트램웨이 동쪽 엘레나 가예고 (Elena Gallegos)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와 하이 데저트(High Desert)지역의 베어 캐니언 트레일(Bear Canyon Trail)을 걸으며 짙은 4월의 들꽃을 여기에 몇개 소개하려고 한다.

### • 달맞이꽃 (Stemless Evening Primrose)

달맞이꽃속에 속하는 꽃의 종류는 125가지에 달하는 많은 종류가 있다. 알버커키 지역에서 보는 달맞이꽃은 흰색갈에 키가 작은 Stemless Evening Primrose(학명: *Oenothera caespitosa*)인데 하이데저트에 있는 베어 캐니언 트레일 주차장 주변에 가장 많이 모여 퍼있다. 일반적으로 꽃은 줄기가 길게 뻗고 그 위에 피는데 반해 이 꽃은 줄기가 없이 낮게 땅에 붙은듯 피어나서 Stemless란 형용사를 앞에 부쳤나 보다. 저녁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Evening의 형용사를 부쳤지만 한국어로는 저녁이란 표현대신 달맞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많은 미국사람들은 두 글자 형용사를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프림로스(Primrose)라고도 부른다.



### • 트레일링 프리베인 (Trailing Fleabane)

이 꽃은 한국에서 볼수 있는 개망초꽃과 같은 속에 들어가는 꽃이다. '프리베인'이란 영어이름은 이 꽃이 벼룩(Flea)을 쫓아낸다고 믿었던 전설때문에 지어진 이

름인데 한국 이름 개망초는 이름의 유래가 더 재미있다. 원산지가 북미 대륙인 이 꽃이 한국에 들어 온것은 1900년 초기라고 한다. 이때 한국에 처음 철도를 놓느라고 철도 침목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썼는데 침목에 씨앗이 묻어 한국에 들어 와서 이 꽃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때가 일본에 강압에 눌려 한일합방이 되었던 때와 같은때가 된다. 사람들은 이 꽃이 퍼지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죄없는 프리베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망국초(亡國草)라고 불렀다. 뒤에서가는 '개만도 못한..'이란 형용사로 '개'자가 추가 되고 '개망초'란 이름으로 고쳐 불러 졌다고 한다. 계란 노란자 색갈의 디스크(Disk)에서 수 십개의 흰 꽃잎이 둘러있고 키는 약 8-12인치정도 된다.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 엉겅퀴꽃(Musk Thistle)

4월 마지막 주에 첫 엉겅퀴가 핀것을 찍은것이다. 아마 5월이 되어야 더 많은 엉겅퀴가 필것으로 보인다. 험상 꺾게 보이는 까시 돛인 앞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꽃은 아름답기만 하다. 꿀을 찾는 벌이 좋아 하는 꽃이다.



• 배비 에스터(Baby Aster)

국화과의 참취속(Aster)에 속하는 꽃인데 영어이름 그대로 배비 에스터로 표기했다. 한국어로 의역을 한다면 '아기들국화' 또는 '아기참취'라고 해도 좋을듯 하다. 꽃잎이 1/4인치 정도의 작은 꽃이다. 키도 4-6인치밖에 안된다. 하얀 꽃잎은 12개 내외가 되며 노란 디스크를 둘러싼다. 사막의 매마른 땅에도 잘 적응해서 자라는고로 Sand Aster란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양장피 잡채 \$17.95

**ALLSTAR REALTY** L.L.C.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KOREAN B.B.Q HOUSE**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Sun 4:00-9:30

• 페인트 브러쉬 (Paintbrush)

학명은Castilleja 인데 약200여종이 되고 색깔도 빨간색 이외에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의 꽃도 있다. 샌디아산 밑에는 빨간색의 페인트브러쉬가 많이 핀다. 유화를 그리는 화가가 빨간 페인트를 칠하다가 붓을 땅에 꽂아놓듯 하다고 페인트칠하는 붓, 영어로 Paintbrush란 이름이 지어졌다. 서부 지역 인디언 땅에 많이 피는 이유로 인하여 '인디언 페인트브러쉬'라고도 부른다. 대부분의 페인트 브러쉬는 아직 꽃이 피질 않았고 엘레나 가예고의 이 꽃 하나가 4월 마지막 주에 처음 핀것을 찍은것이다. 5월이 되면 많은 페인트 브러쉬가 필것이다. 빨간색갈의 꽃잎으로 보이는게 실은 꽃잎이 아니고 꽃잎을 둘러싸거나 바쳐주는 포엽(苞葉, Bract) 이라 부르는 잎이다.



• 버베나(Verbena)

한국어로는 마편초(馬鞭草)라고 번역되는 버베나는 250여종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샌디아산에서 피는 버베나의 학명은 Glandularia bipinnatifida인데 분홍색이면서 보라색이 섞인 색깔의 화려한 꽃이다. 야생화라고 믿어지지않고 화원 이나 온실에 있어야 될 꽃같이 느껴진다. 4-5월의 광야의 들판을 광야 아닌 우리들 집의 뒷 마당 정원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꽃이다.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Mon~Sat  
10:00~6:00

Sunday  
close

#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Armani Mansour**  
Licensed Sales Producer  
The Keller Agency

**Allstate Insurance Company**  
6321 Riverside Plaza Lane NW  
Albuquerque, NM 87120  
Phone 505-898-8565  
Fax 505-898-7674  
armanimansour1@allstate.com

24-Hour Customer Service

- **즐거있는황금꽃**  
(Stemmed Goldflower)

학명은 Hymenoxys linearifolia인데 우리말 이름은 찾지 못해서 영어이름을 번역해서 '즐거있는 황금꽃'이라고 제목을 부쳤다. 황금꽃(Goldflower)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잎사귀가 즐기에서 나오는 이 꽃과 잎사귀가 즐기에서 나오지 않고 밑에만 몰려 있는 Stemless Goldflower와 구별 하느라고 즐기있는 (Stemmed)이란 형용사가 앞에 붙었다.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이런 고은 꽃이 필수가 있을까? 생각하게하는 꽃이다. 연한 노란색의 꽃잎 12-14장이 진한 노란색의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으며 키는 10-50cm 가 된다. 잎이 가늘어서 Narrowleaf Hymenoxys란 이름으로도 불리운다.



# KOREAN B.B.Q HOUSE

##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Sun 4:00-9:30

##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 18

**베트남 스프링롤**



## USA Legal Group, Inc.

A Law Corporation

### 상해법, 교통사고, 파산법 전문 변호사



**Los Alamos 와 Albuquerque 인근에 산불로 인해 ash 가 집 혹은 건물로 날아들어 왔을때 compensation 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보험회사로 부터 Los Alamos 산불 이나 Arizona 산불의 연기와 재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을 받지 못하셨거나 deny 되셨나요?**  
**대부분의 화재보험은 외부지역에서의 재나 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clean-up cost이나 replacement cost 를 책임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New Mexico Attorney: Charles Lakins**  
**Donovan Kang(도노반 강): 사무실Office 505-563-5538**  
**직통Direct 505-563-5539**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com).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알버커키

### Albuquerque

#### 한국식품점

#####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 한인 식당

#####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 건축/페인트 Painting

#####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란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adi: The Ingles Company Realtors (505-828-1366)

####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96-0336

#### 한의학사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 화원/원에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 505-797-2211  
 커튼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틴 505-286-3535  
 www.dahnyoga.com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1441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안녕하세요 미주 한인회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리아미드 (나일론)PA6  
 PA66 구입니다 폐기되는  
 카펫에서각은 샤링가루  
 ,펠렛 PA6 PA66  
 섬유스크랩 취급하시는분  
 또는 구매하실 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양은 얼마든지  
 관계없이 구매합니다

E-mail  
 lsy1030@korea.com

MOBILE +82-16-850-9952  
 번입니다

(우표 값이 61센트에서 64센트로 올랐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1년 동안**  
**집에서 받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본인 이름 집 주소**  
**65센트 우표 12장**  
**또는 8불 짜리 check를**  
**payable to "KUMC"로 써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receive this  
 journal by mail, send by mail  
 your name and address to  
 following address with your \$8  
 check payable to KUMC)

**To: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To: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http://www.kaanm.com)

stamp here

65 cent 우표  
붙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